

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차이 17년 만에 최대

2008년 8월 이후 격차 가장 벌어져
인구 집중·다주택자 규제 등 영향
'똥똥한 한 채' 선호...양극화 심화

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차이 추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2017년 11월=100) 기준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지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지난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만 끌어올리며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더미변수 추정 등을 통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아파트 가격 변화율(KB매매가격지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0.912%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은 0.07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논문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보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리가 올라 주택 매입 기회비용이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 더는 지방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방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똥똥한 한 채'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해외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지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지난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수순 차이는 2008-2009년까지 확대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가 위축되면서 점차 축소됐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

했고,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커졌다.

최근에는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

국정자원 화재 여파 배터리업계 '각형·LFP' 기술 전환 박차

카카오·국정자원 '파우치형 삼원계' 삼성SDI 등 국내 3사 개발 본격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발화점인 무정전전원장치(UPS)에 쓰인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정자원 화재뿐만 아니라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야기한 화재 현장에 있었던 배터리 모두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로 파악되면서 각형과 LFP로의 기술 전환이 빨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배터리 업계는 당국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이번 화재는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 발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불이 난 배터리 모델도 이전까지 화재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이어진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배터리가 모두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화재는 2014년 납품된 파우치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UPS에서 시작됐고, 2022년 화재는 외부 전기 설비 이상으로 발생한 불씨가 파우치형 리튬이온 삼원계 배터리에 옮겨붙어 사고가 커졌다. 마침 배터리 업계에서도 각형과 LFP 배터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고 열 발산이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순상 위험이 큰데다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로 배터리가 팽창하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비해 각형 배터리는 금속 케이스 설계를 통해 배터리 셀 자체에 가스 방출 밸브나 회로 차단 퓨즈 등 화재 방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배터리 형태가 아닌 소재별로는 LFP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LFP는 배터리 소재 중 열 폭주 개시 온도가 삼원계에 비해 훨씬 낮아 화재 안전성 면에서 우위가 뚜렷하다.

중국 업체들이 안전성이 높은 LFP를 각형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도 이 같은 관

측에 힘을 실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배터리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흐름에 따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도입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SDI의 경우 이미 2011년 울산 공장에서 처음 각형 배터리를 양산하며 국내 업체 중 가장 앞선 각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LFP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 미국에서 생산 체제를 가장 먼저 갖추고 잇따라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SK온도 지난 3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에서 "세계적으로 각형 배터리가 흐름을 타고 있다"며 "개발은 완료했고 양산을 위해 최대한 '스피드 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투데이경제



농협전남본부, 수해 복구 성금 7억 기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9일 "최근 전남 도청에서 전남도 명칭환 행정부지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박재홍 회장, NH농협은행 류종필 본부장, NH농협노조 차상훈 전남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7억원을 기탁하고 전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남농협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농심전심 운동' 퍼포먼스를 펼치고 사진촬영을 통해 동참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성금은 산불 및 국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과 농촌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농협 전개열사 및 임직원이 뜻을 모아 50여만원을 적십자사로 기탁했고 그 중 7억원을 전남도로 배정받았다.

기탁금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전남도가 협의를 통해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군, 나주시, 함평군을 비롯한 13개 읍면이재민 및 농업인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농협광주본부 '농심전심 플로깅' 행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9일 "최근 남구 지식교 일대에서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농심전심 광주 플로깅 & 농촌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광주본부 임직원을 비롯해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식교 하천길 3.3km 구간을 걸으며 영농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농촌 환경을 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 후에는 농촌체험농장인 '힐링가든 휴'를 방문해 허브 족욕 체험을 함께 즐기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안태호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풍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여수지사 061)651-643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